

분류	주일예배 설교- 주일2부
제목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성경	로마서 7:1-6
일시	2009년 6월 21일
장소	임마누엘 서울 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박에 없다. 이번 주간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end)

♣ **성경말씀 (로마서 7:1-6)**

- 0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 0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 0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 0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 0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 06/ 이제는 우리가 엄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 는 날까지

♣ **요약 자료** ♣

☞ **서론**

▶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의 법이 전부 다이다. 아주 악한 남편이 하나 있는데 여자를 늘 괴롭힌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날 죽었다. 잘되었죠? 그 말이다. 겁내지 마라. 끝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세가지 큰 기도응답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

- ▶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어마어마하게 악한데서 벗어나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율법에서 빠져나왔다. 이 축복을 누리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실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 (1) 천국 시민권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누리는 것이다. (계2:1-3:20)
 - ▶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곱별과 일곱영을 붙잡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축대 사이로 다니고 계신다.
 - (2) 하늘에 있는 주의 천사들을 계속 보내사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3)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보좌에 가는 것이다. 끝났다.

2.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 (1) 과거에 있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 (2)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 (3) 사단이 붙잡고 있는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 버렸다.
- ▶ 그래서 율법의 법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런데 자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일4:18(두려움에 형벌이 따라오고), 욥3:25(욕이 염려할 때 사단이 공격), 뱀전5:7-8(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마25:41(사단은 주님 재림오시는 날까지 계속 활동한다), 엡4:27(분내고 싸울 때 사단이 공격한다.). 그런데 다 해방되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3. 새것을 주셨다.

- (1) 요1:12,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 (2) 마28:18-20,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 (3) 롬8:12-17,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 1) 권세는 위에서 내려준 것이다.
 - 2) 이 권세는 사용할때만 역사 일어난다.

4. 결론-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 고전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온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고민하면 무조건 역사 일어난다.

♣ **독취 자료** ♣

☞ **서론**

▶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감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좋은 학교에 입학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똑같은 감사가 나온다. 우리에게 뭐가 생기면 감사할 것이다. 생길 게 확실하다면 그것도 감사할 것이다.

▶ 오해 메시지 듣고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정말로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

▶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오늘 본문 내용이다.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롬7:1-6이다. 안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런데 러시아에 가보니까 열 몇 시간을 가는데 산이 없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가는데도 산이 없다. 러시아 사람들 모아놓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면서 볼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다른 말을 써야 될 것이다. 눈을 들어 들뜬 곳을 보라든지...

또 어떤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어떤 나라에는 양이 제일 나쁜 짐승이라한다. 그 마을에는 돼지가 제일 좋은 짐승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면서 싫어할 것이 아닌가? 양이 제일 나쁜 동물이니까.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돼지를 보라 그랬다고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해되니까...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한니까 본문이 어렵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있는가? 보라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에게 벗어났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었으니까 시집가도 되지 않는가? 그 말이다.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품짝을 못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사라고 보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보라 하니 갔다. 이 본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남편 죽어도 마음대로 일길. 남편 말을 안 듣는다.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 이 본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의 법이 전부 다이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이해시키려면, 아주 악한 남편이 하나 있다. 그런데 여자를 늘 괴롭힌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죽었다. 잘 되지 않았는가? 그 말이다. 겁내지 마라 끝났다. 이게 그런 말이다. 이게 그때 시대 배경 가지고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것이다.

▶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세 가지 큰 기도응답 받는 의미를 갖고 있다.

1.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 천국

▶ 이미 너희들은 구원 받았다는 말이다. 이제 악한 남편이 죽었으니까 시집가도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구원받아 버렸다. 이 비유가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때는 그렇게 비유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악하고 힘든 데서 벗어나 버렸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율법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이미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열흘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과거문제 해결되었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현실문제 해결되었지.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보다 더 큰 것, 천국이라는 배경의 하나님의 자녀.

(1) 시민권(계2:1-3:20)

▶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시민권을 가지고 그 배경을 지금 누리는 것이다. 계2:1-3:20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천국에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온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란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했다.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이다.

(2) 천사(중요)

▶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주의 천사들을 계속 보내사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3) 천국보좌

▶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저 천국보좌에 가게 되는 것이다. 끝났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배경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보좌에 완전하게 되어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란다.

▶ 여러분 이제 믿고 한번 기도해보라. 성경에 한 번도 빠짐없이 중요한 사건 때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일을 하셨다.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건마다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천국배경이 있다. 지금 여러분 문제 당하고 있어도 걱정할 거 없다. 성경에 보면 문제 당한 사람들이 응답 많이 받았다.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성경에 보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받았다. 초대교회에서 열흘 동안만 참고 이 기도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하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 바란다. 이 축복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도 않는다.

1) 일곱 별- 계2장에 보면 분명히 설명되어있다. 계2:1에 보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지금. 사도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무서움 속에 죽어 있었는데 그때 본 환상이다. 자기는 이제 멸망 받아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일곱 별을 잡고 계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 손으로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다는 말이다. 그리고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그걸 모르고 요한이 처음에는 별별 떠난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다.

2) 일곱 영- 계시록까지 쪽 다 읽어보면 저는 몇 개 마음에 남는 게 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영을 부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게 바로 천사이다.

3) 다윗의 열쇠- 그리고 뭐라 되어있는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로 마음과 닿더라.

2.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 그러니까 잘 보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이다.

(1) 과거

▶ 여러분이 과거에 있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이 중에서 간혹 옛날에 무속인으로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 여기 지금 그런 분을 많다. 우리 다락방에 지금 무속인에서 돌아온 사람이 오백 명이 된다. 저보고 얘기한다. 돌아왔는데도 자꾸 귀신들이 와서 괴롭힌다는 것이다. 걱정할 거 전혀 없다. 귀신이 좋 동원 되어 봐도 괜찮다. 끝났다. 여러분은 굳이 절에 가서 잘 필요 없지만 절에 있어도 괜찮다. 과거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됐다.

(2) 사망의 법

▶ 그리고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율법에서 다 해방됐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주일 성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 옛날에 많이들 그랬다.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많이 물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다. 하나님께 영광되면 쓰는 것이다. 그런데서 다 해방 되었다. 아이고 나는 헌금을 많이 못 하는데. 괜찮다. 기도응답 받는대로 하면 된다. 다 해방되어졌다.

(3) 운명

▶ 사탄이 붙잡고 있는 모든 운명에서 다 벗어났다.

▶ 그래서 율법의 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 말이다.

아니 내가 이걸 모르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줄다 아는게 자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교회도 어렵고 형편도 어렵다면 두려울 것이다. 어떻게 되겠는가? ①요일4:18-19 자꾸 두려워하거나 형벌이 자꾸 따라온다. 그리고 ②욘3:25에 욘이 평소 때 늘 두려워하던 것 그걸 사탄이 걸고 들어왔다. 속지 마시기 바란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이렇게 어려움에 속으면 이걸 이용해서 사탄이 공격한다. ③벧전5:7-8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하지 말라 안 그러고 주께 맡겨 버려라. 아니 염려 있는데 어떻게 안 하는가?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기도해라 그 말이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왔는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염려할 때 공격해온다. 그렇지 않은가? 장로님 한분이 염려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걸 공격한다는 말이다. 분명히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 살아있다. 성경에 있다.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④마25:41에 주님 제립 옷의 날에 가뉘시고 그때까지 계속 활동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못 이길 줄 알고 속이는데 염려할 때 속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래서 다 해방되었으니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다. 이 설명을 하려고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는 시집가도 된다는 말로 설명한 것이다. 율법은 이제 죽어버렸으니 여기에 매일 필요 없다. 여러분 이걸 기억 못 하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란다. 분명히 이 사탄은 자꾸 두려워할 때 공격해 들어온다. 여러분이 자꾸만 불신앙에 자꾸 빠지고 걱정할 때. 아니 욘이 믿을 좋은데도 그걸 공격했다. 내 남편이 어떻게 내 마누라가 어떻게 자꾸 염려하면 그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왜 어기로 공격해 들어오는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불신자에게는 이럴 필요 없다. 바로 불신자의 아버지가. 그런데 신자를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보라.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도둑놈이 문이 다 잠기고 잘 보관되어 있는 곳에 가는가? 뭐가 사람이 없거나 조금 허술한 데로 간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은 절대로 저 같은 사람에게 안 온다. 뭘가 좀 좋고 있거나 뭘가 좀 눈이 흐리멍덩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리고 개들도 아무데나 오줌 안 싸다. 개들도 보면 깨끗한 데는 안 싸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일단 다리를 든다. 이 사탄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래서 막 인본주의

쓰고 불신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때 공격해 들어온다. ⑤엡4:27에 보면 막 분내고 싸우고 이럴 때 들어온다. 어떤 교회는 막 싸우는데 이럴 때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막 틈을 탄다. 왜냐?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구원받은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때 과고된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축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도 기억난다. 대구 가장 수양관을 갔는데 한 겨울에 갔다. 수도꼭지를 트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는가? 씻어야 되는데. 산에 있으니 물을 트니까 얼마나 물이 차가운지 모른다. 그래서 삼일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물이 차가워서 양치질도 제대로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목욕은 안 했다. 너무 차가워서 세수도 대충 했다. 삼일동안 집회 했는데 그 대학생들은 내가 세수 안하고 온 줄 모를 것이다. 끝나는 날 내가 가방을 싸고 나오는데 그 원장님이 인사를 하러 왔다. 목사님 별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까? 물어보더라. 말을 안 하려 했다. 찬물만 나와서 내가 고생했다. 아니 뜨거운 물이 안 나왔나요? 물어보더라. 안 나왔다. 그래서 그분이 보더니 저건 뜨거운 물이 나와요. 내 생각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뜨거운 물과 찬 물이 같이 있지 않잖아. 그래서 뚝 떨어져 있어서 다 같은 찬물인 줄 알았다. 만약에 내가 일 년 거기 있었다면 일 년 동안 세수밖에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한다. 내 생각으로 멋대로 착각하는 것이다. 아니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모르고 우리는 속는 것이다.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다.

▶어떤 거지가 평생 먹고 살만한 복권이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이제 나는 거지 안 한다. 왜냐?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 없는 게 뭐냐? 강통이다. 그래서 강통을 강에 던져버렸다. 그래놓고는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복권이 없는 것이다. 습관이 되어서 복권도 강통 안에 넣는 것이다. 뭐든지 강통에 넣는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늘 이런 축복을 안 받는 습관이 되어있어서 와 있는데도 모른다. 진짜로 여러분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3. 새 것을 주셨다-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새 것을 주셨다. 딱 이대로 한번 기도해봐라. 새 것을 주셨는데 성경을 한번 봐라.

(1) 요1:12
▶요1:12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안 그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2) 마28:18-20
▶마28:18-20에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3) 롬8:12-17
▶롬8:12-17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를 왜 하는가? 양자 삼는 이유가 뭐냐? 자, 내가 지금 법적으로 박연주의 양자가 될 수 있다. 법으로 두 사람이 OK하면 될 수 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양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법으로 얘기해봐라.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안 해왔으니 모를 것이다 될 수 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내가 박연주의 양자가 될 수 있다니까. 장난이 아니고 법으로 되어있다. 이유가 하나 있다.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날 다 주기 위해서. 알아들었는가? 세계복음화 할 돈 한 백조 원 있으면 내가 양자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 것을 주셨는데 권세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 1) 위에서 내린 것이다. 이건 자격이 아니고 권세이다.
- 2) 그리고 이 권세는 사용할 때만 역사가 일어난다. 권세는 갖고 있어야 맞는데 사용을 안 하면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는 약한 남편이었는데 부자 세 남편을 만난 것이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주영씨 말고 그 이전에 재벌이 하나 있었다. 알 것이다. 영화로도 나왔다. 몇 년 전에 TV에서도 상도라고 나왔다. 이병철, 정주영씨 앞에 재벌이다. 그 사람이름이 임상옥이다. 그 내용을 내가 대충 얘기하겠다. 이 사람이 중국에 인삼을 팔러 갔다. 그것도 자기 인삼이 아니고 사장의 것을 심부름 하는 직원으로 갔다. 그런데 같이 간 이상한 친구가 자꾸만 놀려가자고 하는 것이다. 어디로 가느냐? 중국에 예쁜 여자가 있으니 가자. 그러니 임상옥이 친구에게 끌려서 창녀집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 임상옥이는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돈을 다 지불했으니 가자. 그래도 나는 안 간다. 그런데 17살 먹은 소녀 하나가 들어왔는데 벌벌 떠는 것이다. 살려달라는 것이다. 얼마나 아버지가 악질인지 아버지가 딸을 팔아 먹었다. 노름꾼이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17살이니 얼마나 무서운가? 임상옥하고 만난 것이다. 그래서 임상옥이 겁내지 마라. 나는 너 안컨드릴 테니까 겁내지 마라.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느냐? 이렇게 겁을 내면서 어떻게 왔느냐? 5천원에 팔려왔다. 당시 중국에서 5천원이 컸던 모양이

다. 그래 좋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5천원을 갚아주고 이 아이를 풀어준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얘기했다. 이번에 수급한 돈을 다 이렇게 썼다. 주인이 믿겠는가? 거짓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에서 잘렸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때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갔느냐? 아주 부잰집에 식모로 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녀가 너무나 착한 여자다. 오랫동안 식모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귀찮은 여자다. 그런데 그 부잰집 주인이 부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소녀를 그 남자의 마누라로 만든 것이다. 너무 귀찮은 여자라서. 그런데 이 남자는 중국 최고의 부자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이 임상옥이를 찾은 것이다. 그래서 아예 별이는 내용이다. 그러니 봐라. 거지같은 도둑놈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늘 고생하다가 시집 잘 가니 그렇게 되지 않는가. 마귀 손아귀에 늘 있으니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4. 결론- 신분, 권세(고전3:16)를 가지고 기도- 성령인도

▶그렇다면 신분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전3:16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부터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것만 하면 된다. 성령의 인도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사업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면 이 축복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것만 되면 된다.

▶오늘도 제가 우리 당회원들 보고 그랬다. 임마누엘 교회의 지교회 하겠다고 여러 곳에서 올라오는데 가능하면 해주지 마라.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장로님들이 직접 제자를 찾아 진도 하여 세우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거의 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 뭐 때문에 다 분쟁이 일어나는가?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내 주장만 내세우는데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해나가는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옳다고 하는 것도 틀린 것이다.

▶고민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세상 고민 말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고민하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난다. 맞는가? 지금 이게 안 된다. 아니 성령의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최고의 축복을 받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런 응답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는다면 누구든지 기도응답 받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 실패했을 지라도 이대로 언약 붙잡으면 응답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램넛들도 조금 고민하라. 행동 함부로 하지 마라. 약간만 인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고민은 그것밖에 없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다니가.

▶이번 주간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 옆의 사람을 축복하자. 최고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임케 해주옵소서.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중국
①<http://www.darak.net> ②<http://data.darak.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1-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중국)